

2024. 5. 12.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마가복음 Mark 8:11-13

제목: 이적과 믿음

(표준새번역) 8:11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ESV) 8:11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argue with him, seeking from him a sign from heaven to test him.

8:12 예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8:12 And he sighed deeply in his spirit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seek a sign? Truly, I say to you, no sign will be given to this generation."

8:13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8:13 And he left them, got into the boat again, and went to the other side.

12 절, “표적(a sign)”은 헬라어 ‘세메이온’(σημεῖον)은 '군호, 징조, 기사, 기적, 이적'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12 절 내용을 보시면, “표적(sign)을 구하”지만 아무도 표적을 받지 못합니다.

8:12 예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8:12 And he sighed deeply in his spirit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seek a sign? Truly, I say to you, no sign will be given to this generation."

많은 사람들은 이적, 기적, 표적, 증거를 보여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적을 보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적을 보여 주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신앙 생활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증거를 보여 주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 이적은 믿음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적은 믿음을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치는 경험을

통해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 예수님에게도 많은 병자들이 병고치러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적은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더 열심히 따르는 기회를 가직 되었습니다.

이적은 의심을 뛰어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의심의 문턱을 넘어 굳거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사 기드온도 양털과 이슬의 기적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 지고 용감한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적을 경험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감격하여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몇마리와 빵 몇 개로 수천명을 먹이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적을 통해 믿음이 시작될 수도 있고, 기적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의심을 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이 항상 믿음을 생기게,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이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니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 나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실제로는 이적 자체로는 믿음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이적을 보고 경험한 것만으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빈도가 많아져도, 이적의 크기가 더 커져도, 나의 바람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 번 설득시켜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부터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이적과 기적을 바라듯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거의 기적, 이적 수준입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작은 기적’, ‘생활의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 하나님 딱 한가지만 들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혀 있다면 뚫어 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세요. 노력하지 못했지만 성공하게 해

- 주시고, 땀 조금밖에 안 흘렸지만 잘 되게 해 주시고, 투자는 조금 했지만 대박 나게 해 주세요.
-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 주셔야죠, 나와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병 안 걸리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 주세요, 걸린 병은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세요.
 -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즐겁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틀렸다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만 믿고,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뿐,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병고침을 보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물고기와 떡 조금으로 수천명과 함께 나누어 먹었으면서 여전히 기적과 이적만 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기도 수준이 똑같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지는 않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과 내 기도 응답은 원합니다.

이적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기적을 보는 것이 내 신앙 생활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 없고 오직 내 삶의 평안과 행복과 나의 안위만 '기도 제목'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신앙은 병들고, 믿음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을 Toxic Faith(해로운 신앙)라고 부릅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적(세메이온)이 믿음이 생기고, 기적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11 절, 이렇게 표적(sign)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sign)를 보여 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대답을 듣고 약점을 잡고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1 절, 시비를 건다, 시험한다는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표준새번역) 8:11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ESV) 8:11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argue with him, seeking from him a sign from heaven to test him.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 증거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수백 수천개의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 장을 보고

있으니 1 장~8:10 까지의 내용만 살펴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1 장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침례(하늘의 소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온갖 병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고치심
	나병 환자를 고치심
2 장	중풍병 환자를 고치심(죄를 용서하심)
	자기를 ‘인자’(메시아 호칭)라 부르심
3 장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많은 병자를 고치심 → 예수께 손을 대려고 몰려듬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
4 장	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5 장	거라사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달리다굴)
	12 년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심
6 장	5 천명을 먹이심(물고기 2, 떡 5)
	물 위를 걸으심, 바람을 잠잠하게 많은 병자들을 침대에 눕힌채 들고 옴 → 예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나옴
7 장	율법의 바른 뜻과 정신을 가르치심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심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심
8 장	4 천명을 먹이심(물고기 2, 떡 7)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이 보여 주신 ‘세메이온’입니다. 그들은 이미 보았고,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Sign 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세메이온(표적, sign)은 화살표 혹은 손가락과
같습니다. 표적(sign)을 보면 당연히 그 표적(화살표,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메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살표만 보면서, 손가락 만 보면서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십시오. 이적과 기적 너머에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보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와 동행할 때
믿음이 자라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SV) John 15: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 공급받고, 예수께 배우십시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루 하루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간 순간 예수 말씀 떠 올리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잠깐이라도 묵상기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What would Jesus do?)를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메이온(이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그 세메이온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세메이온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세메이온 너머를 보십시오. 은혜의 선물, 기도 응답, 이적,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믿음 성장의 비결입니다.

가장 큰 세메이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나의 죄를 모두 없애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이 믿음까지 주신
것이 모두 기적입니다.

세메이온 너머에 계신, 가장 큰 세메이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이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 붙어
공급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 믿음 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내 삶의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을 주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4.5.12. 이적과 믿음. 마가복음 8:11-13)

1.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처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처음'을 소개해 주세요.
2. 나의 기도가 응답 받았던 그때 있었던 세메이온(이적)을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 수 많은 이적과 기도 응답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떠나갔을까요?
4.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세메이온(이적)을 나의 평범한 삶에서 찾아봅시다. 그 놀라운 은혜 중 몇 가지(혹은 한가지)를 나누어 봅시다.